

한국의 그림_매너에 관하여

하이트컬렉션 3.31-7.21

일단 '한국의 그림'이라는 거창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전시 타이틀로 쓴 것에 대해 많은 오해와 어느 정도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이 전시가 전체성을 염두에 둔 국가대표를 뽑는 정당한 대회도 아니면서 대표성을 말하려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한국의 그림'이란 의미는 기획자의 의도에 의해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점은 기획자와 관계자들이 전시도록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그림'이라는 화두는 전 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경계 없는 그 무엇일진대... 이러한 제목을 달고 전시를 기획한다는 것은 숨은 비수가 있거나 아니면 일종의 함정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이 어떻다고 말할 계제가 아니지만, 그 교육을 통해 우리는 암암리에 모국을 일컬을 때 많은 가치를 각인시켜왔다. 그러한 절대성, 우월성, 순수성들은 그 자리에서 비껴나거나 그 자리들을 비워주었을 때, 그 가치가 새로워질 것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그곳에 '매너'를 써놓았다. '매너'라는 것은 적어도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 주체가 타자를 소유하거나 물리적 작용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주체), 대상(타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거리가 유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태도의 관계성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다. 매너는 주체가 그(그것)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나, 어떤 태도로 그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자 이렇다. 매너의 태도는 데이트를 하는데, 계산적으로 사랑을 처리하거나 한 애인을 주시하는 관찰 보고서도 아니요, 달리는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사냥꾼의 눈도 아니다. 희미한 촛불을 사이에 두

고 내가 그(녀)인지, 그(녀)가 나인지 모르게 서로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눈(스크린)에 내가 보이지만 이내 사라지는...

'매너'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애매모호한 빈 시간에, 움푹 파인 땅 거죽 여기서, 외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가들이 어떤 것을 '응시하고' 또한 '그린다.'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작가의 목적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이 무의식은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매너'를 알고 있는 주체들 간에 동음이의어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매너'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핍으로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핍을 메우고 전시의도를 드러낼 수 있게 기획자는 몇 가지 장치를 해놓았다. 여기서 전시의도는 작가들과 구별되고 분리된다. '매너'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해석하려는 '한국의 그림 매너에 관하여'라는 전시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기획의도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제 '한국의 그림'은 우리의 작가들로 전이되며 그 의미를 획득하고 '매너의 관하여'는 작가(주체)와 작품(대상) 사이에 재배치된다.

자! 그림 이 전시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함정과 무의미, 커다란 구호와 가느다란 도주선이 있으며 탁월한 전시 콘셉트만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텅 빈 의미만이 흐릿하게 보인다. 눈치 챌겠지만 필자의 글에는 전시회에 참여한 8명의 작가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의도는 전시 작가들은 보이지 않은 결핍으로, 빈 구멍으로 남겨두고 싶었고 또한 전시 기획의도에 따라 보이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이미 그들은 이 전시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의문점만이 남는다. 전시회의 의미는 그 비어있고 결핍되어 있는 거기(현장)에서 발아하는지? 아니면 선행된 언어로서 빠르게 찬 글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윤제 · 포천아트밸리 예술감독

박대성 <박대성, 소동파의 구양영숙취옹정기(歐陽永叔醉翁亭記)>

임서>(사진 앞) 한지에 먹 783×40cm 2011

오른쪽 · 김선두 <느린 풍경-불어오다> 한지에 색분 138×171cm 2012

